

시방세계

해외여행·항공권·여권비자 수속
불교심지승려 전문

(주) 예조여행사

안국동로타라(조계사역) 종로구 수송동 5번지 통일빌딩3층

전화 : (02)733-3900



“대자연은 법당... 생활이 禪이죠”



산문밖의 禪

10년째 안거
前 이화여대교수 이남덕 씨

“상추씨 뿌리며
불성을 느껴요”
“산도 정들면
존재의미 커져요”

햇살이 눈을 아리게 하는 봄날, 포천의 거처로 그를 찾아갔을 때 사람보다 먼저 풍경이 맞아주었다. 백목련과 자목련, 노란 개나리, 만개한 빛나무의 낙화는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오른다. 온통 봄빛이 분분하다. 죽엽산 봉우리를 배경으로 들 어선 아담한 한옥, 앞으로는 등에서 서로 등줄기를 뺀 산자락이 감싸고 있다.

경기도 포천 죽엽산 자락, 이남덕교수(전 이화여대·78)는 상추와 속갯 씨앗을 심고 있었다. 깨알보다도 작은 씨앗을 이랑에 심으며, 불성을 느낀다고 했다.

“이 작은 씨앗이 우주를 품고 있어요.”

오래 전 관음스님이 주신 말씀으로 설명을 이어나갔다. “聖人無己 고로 無所不己라, 성인은 불

그때 돌멩이 아들내외에게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편지를 띄웠다.

“내게는 금생에 꼭 해결해야 할 구도의 숙제가 있고, 지금 여기가 그 숙제를 풀기 위한 가장 적당한 시기, 적당한 장소임을 알게 되었다. 갑자기 결정된 느낌이 없지 않으나, 무슨 일든 때가 있고 인연이 있는 법, 나로서는 필연적인 동기를 가진 행동이니 너희는 이해하기 바란다.”

청와스님과의 첫 대면의 순간을 73년 인도성자 순례 때의 감동으로 대신 설명했다. 부처님이 정각을 이루시기 전에 처음 깨달으신 전정각산(前正覺山)에서였다.

“갑자기 통 전체로 진동이 솟구쳐 올라오며 온 전산에 화희와 불결이 퍼지는 것을 느꼈어요. 전

이든, 열불이든, 기도든, 중생봉사행이든 무슨 방법으로든지 마음의 청화를 심화시키는 일, 그 일만이 중요한 일이지요.”

따라서 그는 특정한 수행방법을 고집하지 않는다. “진리에 대한 흠모와 갈망심(渴慕心)의 정서가 풍부한 사람, 특히 여성들은 열불심이 낫다”고 말한다. 물론 우리 전통선의의 수행법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화두를 10년 들고 앉았어도 기쁜 마음이 없으면 안된다는 말도 덧붙였다.

죽엽산 얘기를 꺼낸다. 광릉수목원 건너편 일명 사할장이 있는 산으로, 우리나라에서 수목이 가장 잘 보존된 곳이다.

73년 인도 전정각산 순례때 온몸 진동 “사는 동안 할 일은 마음정화 뿐이에요”

이 없으므로 자기 아닌 것이 하나도 없다는 뜻이지요. 씨앗을 심으며 그 말을 되새깁니다.”

제가자로서 안거를 빼놓지 않는 수행인. 88년 청와스님과의 만남 이후 매년 안거를 거르지 않았으나 올해로 10안거(하안거 동안거를 마쳐야 1안거로 친다) 성만을 앞두고 있다.

청와스님과의 만남, 가슴이 조여들고 마음이 소연해지려고 할 때 뜻도 모른 채 ‘반야심경’을 외우면 신기할 정도로 그 중세가 맞는 것에 만족했던 그를 일대 변화시킨 만남이었다.

“딱 뽀니까 법력을 안 느낄 수 없었어요. 인도 성자순례에서 느꼈던 진동을 다시 경험했어요. 제자부부를 따라 들른 태안사에서 그해 여정에도 없이 하안거 결계를 태안사 정중당에서 냈지요.”

올이라는 표현은 그 감도를 나타내는 데는 적당하나 상당한 시간 몸을 가누기 어렵도록 지속되었기 때문에 진동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왜 수행인가. 노수행자의 대답은 간단하다. 중도(中道)를 얻기 위함이다. “우리가 무도(無道)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시비(是非)와 증애(憎愛)의 극과 극에 떨어져서 중도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올라 그르다’ 하는 흑백의 논리로 상대방을 몰아부치는 사고의 유희성은 이제 그만 두어야 합니다.”

더불어서 마음의 정화(淨化)에 힘쓰라고 당부한다.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마음의 정화, 그 뿐이에요. 이 순간에 진리의 무량 공덕생명이 내 생명과 하나라는 믿음 속에 참선

산도 사람과 같아서, 낯설고 별 상관없이 지내다가 어떤 계기에 정이 들게 되면 그 존재가 커 다란 의미를 갖게 되는가 싶어요. 나뭇가지 위로 날아가는 새고의 바람소리, 그것은 아마도 나의 전생과 이어지는 소리였을 것입니다. 나는 그 숲 바람 소리에 흘러 산 많은 이 땅에 태어난 게 아닐까.”

산은 그의 법당이다. 아침 저녁으로 올라 해 뜨고 지는 것을 오래도록 바라본다. 그의 예불시간이다.

“죽엽산 산속에서 소리높이 미하반야바라밀을 염송하며 살다가 어느날 대종과 함께 좌선하다 좌복위에서 생을 마치고 떠났어요.”

그러면서 (신심명)의 한 구절을 들려준다. 淨道 無難 難難 難難 難難 難難 難難, 즉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음이지요. 오직 간택함을 거릴 뿐이니/ 미워하고 사랑하지만 않으면/ 통연히 망배하리라.

글: 정성운 사진: 고영배 기자

나의 참선그백

동안거 해제를 앞두고 감사 대자암 선방에서는 정일 큰스님을 모시고 열이십날 저녁 참선시간에 자자회(自恣會)가 있었다. 나는 여기 시방당(十方堂) 선방에서 네 번째 안거를 마치는 셈인데 큰스님 모시고 하는 자자회는 이번이 처음이다. (자자회란 안거 석달 동안에 겪은 각자의 참선공부, 기타 자기심성의 현수소를 반성 질

'아미타불' 염송... 일흔여덟살 새출발

결하여 대종앞에 공개보고하는 모 습이다.)

내 차례가 되었다. 간결하게 요점만 분명히 말하고 싶었으나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

환희심이 솟구치는 속에 입장으로 직결되면 나는 다른 이들이 화두를 들듯이 '아미타불' 하나로 집결시킨다. 이것은 내 나름의 '열 불선' 방식이다.

〈보리방편론〉으로 인도된 나의 참선공부는 이제는 처음 한글 '마음은 허공과 같음'만 생각해도 우주전체의 생명을 느끼게 된다.

그날 밤 정일스님은 내게 귀중한 가르침을 주셨다. “지복의 경서에만 잠겨있지 않도록.”

계달음의 계함을 향해서 힘을 모으라는 가르침인 것으로 받아들여졌으나, 아직 나는 힘을 모으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老人不修(노인불수) 破那不修(파거불행)인가, 아니다. 78세의 새출발이다.

이화여대

- 1920년 충남 아산 생.
- 이화여전 문과를 거쳐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조선어문 전공) 졸업.
- 동이대 숙명여대 이화여대 국문과에서 후학을 가르치다 86년 정년퇴임.
- 현재는 포천 죽엽산 아래에서 대자연과 벗하며 구도와 기원으로 정진하고 있다.

신토불이 무공해 오염되지 않은 피부! 신선한 자연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각종 유해 대기속에서 지친피부를 바라보는 마음은 실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신선한 자연속에서 생활하고 싶은 마음이야 간절 하지만 생활은 또 이를 수용하지 않습니다. 바쁜 일정속에서도 만족하고 싶은 자연의 美! 이제 세안·샤워하실 때 만큼은 항생제를 쓰지 않는 천연 무공해 향균 면역 피부 미용 비누를 사용하세요.



오보크린은 피부에 감염되는 병원균들에 대해 직접·간접적인 생리작용으로 항균효과를 발휘하여 주부습진, 비듬, 무좀등을 예방하고, 피부의 자연면역기능을 활성화 시켜줄 뿐만 아니라, 공해로 인해 오염된 중금속을 피부로부터 배출시켜 항상 싱싱하고 아름다운 피부를 유지해주는 새로운 개념의 첨단 생명공학적 건강미용 비누입니다.

- 항방재유출물(오미지, 구기자, 감초, 숙지황, 천궁,계피등)을 첨가하여 한국인의 체질에 맞게 만든 무공해성 신토불이 비누
- 피부에 미백효과가 있습니다.
- 99% 천연소재 사용
- 공해매연, 산성비로 인해 오염된 중금속배출 능력이 우수합니다.
- 주부습진, 여드름, 가려움증(비듬, 무좀등) 예방에도 좋습니다.
- 향균·항진균효과(antibacterial & fungal effect)가 있어 피부에 자연면역 기능을 증진시키며, 정기적 사용시에도 병원균들이 내성을 갖지 않습니다

첨단의 생명공학 기술과 전통 동 의약으로 탄생한
신개발의 비항생제성 향균 면역피부 미용 비누

(주)씨·티·에프 호서대학교 호서신기술센터 내

구입문의 현대불교신문사 영업부 02)732-1522(주)
02)737-8881(대)